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여섯 가지 징조와 확실한 소망

성경말씀: 계1:1-3; 22:20-21름

지난 몇 주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 성도의 기본 교리 강해, 더 할 것이다.

이번 주는 6.25 남침 69주년 애국 설교를 해야 하는 때, 다음에 할 것이다.

요 근래에 나라가 좌경화돼서 참으로 살기가 어렵다. 안보, 국방, 경제, 교육, 외교 등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국민들 낙담, 분노하게 만든다. 이것도 다음에 할 것이다.

오늘은 이런 바쁜 세상, 어지러운, 힘든 세상에서 잊지 말고 지내야 할 것을 살펴보고 확신하려 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있다.

어떻게 아는가? 성경이 말한다.

그 일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이후에 가능하다. 휴거도 천년왕국도 영원한 세상도 재림 이후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재림의 소망을 놓으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들어 올린다.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많은 것, 내가 다시 온다. 지옥을 두려워하라.

목사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벴후1:12-15, 내 의무

먼저 소망의 소식: 예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오실지도 모른다.

여러분과 내가 감사해야 한다.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 몰라서(고전2:9)

예수님을 믿는 이유: 여기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1967년 예루살렘 탈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50년이 지났다, 재림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벴전3:15, 왜 우리는 재림을 믿는가? 날짜는 세지 않지만 세상의 변화와 징조는 믿고 있다.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운 때, 이혼, 가정 문제 등 심신이 힘들 때,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려면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유 있는 확신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6가지를 설명하려 한다.

알면 평안하다. 알고 믿고 전하기 바란다. < >

1. 노아의 시대: 호전적인 동성애 시대

임박한 재림의 가장 큰 이유: 호전적인 동성애의 급속한 확산, 마24:36-39, 눅17:28-29

이 두 시대의 특징: 동성애, 성적 왜곡의 극치

나는 요즘 주님의 이 예언을 보면서 정말로 성경인 신기하다고 느낀다.

10년 전을 생각해 보라. 동성애 입도 못 열었다.

이제는 다 벗고 나와서 자랑한다. 미국은 오바마 때에 동성 결혼 합법화

현 시대 동성애의 메카는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 텔아비브, 매해 20만 올해는 30만

한국의 동성애 주자 홍석천 이틀 전 내외뉴스통신, 너무 부럽다.

동성애가 합법화 된 1988년 이후 이스라엘 텔아비브는 세계 동성애를 상징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텔아비브프라이드퍼레이드’는 유명한 성소수자들의 축제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죄, 가나안 족속들의 죄: 동성애, 예수님의 재림 예언

홍석천, 이스라엘 성소수자 축제 참여 "낯선 나라에서 부러움"

홍석천은 14일 자신의 SNS에 "#이스라엘투어 #텔아비브 첫날. 오늘은 #텔아비브프라이드퍼레이드

2019 메인 행사 날 1년 중 가장 큰 축제라서인지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삼십만

명 넘게 모인다고 하니 대단히 큰 축제다. 재밌는 것은 모든 시민의 축제이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이 눈에 많이 띈다"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그는 "종교적 이미지가 강해서 이런 축제가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통하며 하나의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 작은 나라를 위대한 민족으로 남게 하는 비밀일지 모르겠다. 오늘은 모두가 행복하고 인정하는

날이 되길. 사랑이 넘치는 날이 되길. 오. 텔아비브 시장님이 이 퍼레이드의 시작을 선언한다 한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부러움 #이스라엘 #텔아비브"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교회도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 분당우리교회의 부목사인 정진영 목사가 설교 중 "동성애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 반대하는 게 꼰대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목사는 지난 2019년 6월 5일 수요일예배에서 "예민한 이야기를 언급해보고 싶다"면서 최근 열린 서울퀴어축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설교했다. 정 목사는 설교에서 "퀴어 축제에 대한 많은 자료를 찾아봤다. 몇 년 동안의 퀴어축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 기독교계의 반응, 그 기독교계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나이드신 분들의 반응을 봤다"면서 "내가 찾은 결론은 대세는 넘어갔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대세가 넘어갔으면, 여론이 우위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실제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는, 퀴어 축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더 높은 상황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설교 시간에 정 목사는 거짓 통계를 인용해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정 목사는 심지어 "언론과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인들과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소위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져버렸다"고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을 꼰대라고 비꼬았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 설교 이후 전화가 빗발치고 이찬수 담임 목사는 두 번 사과 성명

이찬수 목사는 정 목사가 △설교에서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선 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교회 안팎 교인들에게 혼란을 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목사는 "비록 표현이 과격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복음을 살아 내는 것이 대안'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던 젊은 목사의 중심만은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일이 본인에게 큰 교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밝히며 문제 제기한 사람들의 고언을 되새기겠다고 했다.

자, 이 찬수 목사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는다 해도 이것은 목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세상이 다 찬성해도, 여론이 다 찬성해도 목사는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왜 부목사가 그럴까?

이정훈 교수는 이찬수 목사가 설교 시간에 본인이 좌파 간첩 신영복의 책을 읽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단순히 부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찬수 목사의 확고하지 않은 이념 체계가 거기 부목사들의

정신세계를 느슨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지금 온 세상이 사회주의/공산주의/낙태/동성애 문제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어째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교회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가?

그 교회에는 좌파 중에 좌파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다닌다. 이런 사람에게 무상 복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사진을 찍으면 더두둑 안 된다.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치므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스필전의 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2. 수명 80세, 기술, 바벨탑의 저주를 극복할 수 있다. 수명과 말

다니엘서 12장 4절: 과학의 발전, 많이 들어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싶다.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사악함

홍수로 새 시대 개막: 노아의 세 아들들 여러 나라 민족, 그런데 창11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거부하며 바벨 탑 사건을 일으킨다. 벽돌로 탑을 쌓아 하나님 재적, 말의 혼잡, 세상으로 쫓아 보내심

그 결과: 거주의 경계가 정해짐, 말이 다름,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수명이 7-80세로 고정됨(시90:10)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고정해 놓으신 것들이 변한다.

민족들의 이주 거주 경계 파괴, 구글 번역기 등을 통해 조만간 언어 혼잡 극복, 특히 신약의 개발로 인간 수명 80세를 거의 다 뛰어 넘음

죄의 유전자를 받은 이 몸으로 80세 이상을 사는 것은 무리

물론 누구나 장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술 개발,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도전

3. 이란(곡과 마곡)

예수님 재림 전에 극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국가가 나타나야 한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할 국가가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란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 그 영이 바로 마귀 아무도 이란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 등장, 신정 국가 회귀 현 시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 핵무기 위협 에스겔서 38-39장의 곡과마곡의 전쟁의 중심 세력: 러시아와 함께 연일 지금 보도되는 전 세계 뉴스를 보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뉴스이다.

4.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가장 확실한 재림의 표적이다.

1948년 5월 이스라엘 국가 형성,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사66:8-10; 겔37:11-12)

예루살렘 성전터 확보하지 못함, 1967년 6일 전쟁 성전터 확보

성전 재단, 구약 시대 성전 예배 기구 99% 예비 심지어 붉은 송아지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보 살후2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살후2:3-4).

지금 그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5. 교회의 배도

살후2:3. 떨어져 나가는 일, 휴거 혹은 배도

정상적인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

정상적인 교회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교회가 거룩함을 버리고 사랑을 추구함, 모든 것 다 수용함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로 전략함,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다.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적들로 수많은 사람을 속인다(살후2:7-10).

여기에 넘어갈 자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과격한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교리 무시, 심지어 교회 안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팽배

대표적인 사례: 로마 천주교, 해방 신학, 민중 신학

6. 재림의 멸시: 릭 워렌 등, 재림이 다가올수록 더 관심이 없다.

마지막 가장 큰 징조: 재림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재림을 믿는 자들을 멸시한다(벧후3:3-4).

릭 워렌, 로버트 솔러 등의 가짜 목사들이 나타나 재림 신앙 무시 멸시

지금 나가서 휴거는 믿는다고 하면 멸시와 조롱

더욱이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올리브 산으로 내려와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고 하면 멸시 조롱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재림은 확실하다

계1:3의 복

계22:20, 내가 반드시 속히 너희에게 간다.

우리의 반응: 20절 후반부

주님의 약속: 21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1. 동성애 확산, 2. 인간 수명의 증대, 3. 이란 페르시아의 등장, 4. 이스라엘, 5. 교회의 배도, 6.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의 증대

이 땅에서 힘들게 투쟁하고 있다. 해야 한다. 어려움이 있다. 해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자.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휴거받아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딸로 사는 우리가 되자.

살림

<https://www.youtube.com/watch?v=R0sJfdCV-Tw>